

천연기념물 백양사비자나무 군락 시나리오

자연환경해설사 장석윤

안녕하세요.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장석윤입니다.

이곳 백양골에는 유명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가을이면 울긋불긋 물드는 아기단풍, 오랜 세월 백양골을 지켜온 갈참나무 군락,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할 천연기념물 제 153호로 지정된 비자나무 군락입니다.

비자나무는 나뭇잎의 모양이 아닐 비(非)자를 닮아 비자나무로 불리며 나이테가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더디게 자라 탄성이 좋아 예로부터 가구나 배, 바둑판 등을 만들 때 쓰는 등 쓰임이 많아 황제의 나무라 불리던 나무입니다.

비자나무는 남방계 식물로서 따뜻한 곳에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제주도나 남해안 바닷가에도 비자나무 군락이 있고 강진이나 고흥의 200~500년 정도 된 오래된 비자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 백양사의 비자나무는 군락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 백양산이 비자나무가 자랄 수 있는 가장 북쪽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는 사람이 옮겨 심어서 가꾸면 자랄 수 있지만 기온이 맞지 않아 스스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비자나무가 자랄 수 있는 가장 북쪽의 8,000여 그루나 있는 대표적인 숲으로 식물분포학적, 생태적 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럼 이곳에 왜 이렇게 많은 비자나무가 숲을 이루며 자라게 되었을까요?(질문/참여유도) 그 이유는 바로 이 비자나무의 열매에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아프면 병원이나 약국이 많아 쉽게 약을 구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약이 귀해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약들을 숲에서 구했는데 이 비자나무의 열매도 약으로 썼습니다. 어떤 약으로 썼을까요?(질문/참여유도) 네. 바로 구충제로 썼습니다.

이곳 비자나무 군락도 고려시대 백양사에 계시던 각진국사라는 스님이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비자나무 열매를 약으로 나눠주기 위해 한그루 두 그루 심었던 게 지금은 씨앗이 퍼져 8,000그루나 군락을 이루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비자나무의 열매입니다.(비자나무 열매를 나눠준다) 녹색의 과즙에 쌓여있는 열매 속에 씨앗이 들어있는데 딱딱한 껍질을 깨보면 아몬드처럼 생긴 씨앗이 있습니다. 이걸 먹었던 겁니다. 지금은 구충제를 일 년에 두 알만 먹으면 되지만 이 비자나무 열매를 한 두알 먹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하루에 열 알씩 일주일 먹는다면지 해서 많은 양을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백양사에 계시는 스님들은 비자나무 열매를 간식처럼 그냥도 드시고 복아서도 드시고 합니다. 한번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참여유도)

이곳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지구에는 가을이 되면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사무소에서 많은 현수막들을 걸지만 ‘도토리를 줌는 당신의 손 다람쥐가 슬퍼합니다.’ 등 열매를 주워가지 말라는 현수막도 겁니다. 이처럼 국립공원에서는 나무 열매를 주워가지 못하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질문/참여유도) 네. 바로 다람쥐를 비롯한 많은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무도 사람처럼 나이가 들면 언젠간 죽게 됩니다. 나이 많은 나무가 쓰러져 죽으면 이 작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그 빈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숲은 언제나 우리에게 푸르름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작은 씨앗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국립공원과 숲,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